

설교자를 위한 성지 가이드 II

- 이스라엘의 성지(聖地) II

장흥길 ≪ 한국성서학연구소 소장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신약학

I. 들어가는 말

필자는 지난 호에서 설교와 성경공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자를 위한, 첫 번째 ‘성지 가이드 연재물’로 ‘이스라엘의 성지 I’을 소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이스라엘의 성지 II’를 안내하려 한다. 이는 성경에 언급된 성지를 연구하는 목회자나 신학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성지 I’에서 필자는 이스라엘에 있는 주요 성지를 「이스라엘 자연과 국립공원 보호청」(Israel Nature and National Parks Protection Authority)의 구분을 따라 여섯 지역으로 나누어 분류하

고, 그 중 두 지역, 곧 ‘골란 고원과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과 ‘하부 갈릴리 지역’을 개관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나머지 네 지역인 ‘지중해 해안과 중앙 이스라엘 지역’, ‘유대광야와 사해 지역’, ‘네게브 지역’, ‘에일랏과 아라바 계곡 지역’의 성지를 차례대로 안내하고자 한다.

II. 이스라엘 성지의 지역별 안내

1. 지중해 해안과 중앙 이스라엘 지역

(1) 지중해 해안 지역

먼저, 224km 길이의 지중해 해

안 평야 지대에 위치해 있는 주요 성지로는 세 곳, 곧 ‘갈멜 산’, ‘가이사랴’, ‘아스글론’을 손꼽을 수 있다. 그중 갈멜 산은 하나의 산이 아니라 샤론 평야와 에스드렐론 평야 사이에 솟아 있는 해발 540m, 길이 20.8km의 산맥인데, 성경에서 ‘갈멜’이란 ‘아름다움’(아 7:5; 사 35:2), ‘위엄’(렘 46:18), ‘유복한 숲’(렘 50:19)을 의미하였지만, 갈멜의 쇠함은 하나님의 ‘심판’(나 1:4)이나 ‘황폐함’(사 33:9; 암 1:2)을 암시하였다. 이 지역은 가나안 정복 당시 아셀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으며(수 19:26), 지중해와 주변 지역을 넓게 조망할 수 있어 고대로부터 예배 처소로 이용되기도 하였고(왕상 18:30), 협곡의 동굴과 무성한 숲은 쫓기는 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곳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곳으로(왕상 18:20-40), 무크라카(Deir el Muhraqa)에 18세기 이후로 갈멜회 수도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념 교회가 세

워져 있다.

북부 갈릴리 지역의 가이사랴 빌립보와 구분되는 ‘해변의 가이사랴(Caesarea Maritima)’는 갈멜 산 남쪽 약 37km 지점의 지중해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대 해롯에게 이 지역 통치를 허락한 것에 대한 답례로 해롯이 황제를 기려 10년 동안 건설한 도시이며, 해롯 가문의 왕궁과 로마의 지방 총독이 거주하는 관저가 있던 팔레스틴 지역의 행정과 무역의 중심지였다(필자의 줄고, “선교 관문, 가이사랴”, 『그말씀』 2008년 11월호 참조). 이 항도(港都)는 바울이 회심한 후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다메섹에서 자신을 붙잡으려는 유대인을 피해서 고향인 다소로 가기 전에 들렀던 경유지이자(행 9:30), 베드로가 전도하여 세례 받았던 백부장 고넬료가 살던 곳이며(행 10:1, 24; 11:11), 바울이 2, 3차 선교여행에서 돌아올 때 들린 경유지(행 18:22; 21:8)이자 마지막 세 번



에일랏의 산호초

째 선교여행 끝 무렵 예루살렘 방문을 결심한 곳이고(행 21:13), 또한 가이사에게 상소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2년 동안 옥살이한 곳이기도 하다(행 23:23-26:32). 후에 이 도시는 주후 640년 아랍의 침략으로 회교권에 넘어갔다가, 1265년 십자군 원정으로 잠시 회복되기도 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유적으로는, 궁전과 공공건물, 원형 극장, 신전, 십자군 시대의 성벽, 아우구스투스

신전, 비잔틴 시대의 교회, 파수대, 회당, 로마 시대의 경기장, 헤롯의 수로 등이 있으며,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碑文)은 고고학적인 중요한 발굴물이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넓은 해안 평야인 길이 112km의 블레셋 평야에 있는 '아스글론'은 이 평야에 있는 가자와 아스돗, 그리고 세켈라에 있는 가드와 에글론과 함께 블레셋의 다섯 도시(pentapolis)를

이루었다. 고대 성벽 안에 위치해 있는 아스글론 국립공원의 해안 사구(砂丘)를 따라 성경상의 텔 아스글론의 유적이 남아 있다(삼상 6:17). 이곳에서 4천 년 전 중기 청동기의 성문이 발견되었으며, 공공 건물인 바실리카, 그리스의 신 아틀라스(Atlas)의 조상과 날개 달린 니케(Nike)의 조상(彫像) 등의 인상적인 로마 시대 유적도 남아 있다.

(2) 중앙 이스라엘 지역

중앙 이스라엘 지역의 성지로는 중앙 산악 지역 북쪽의 ‘사마리아 산지’에 위치해 있던 ‘세바스티야’, 그와 함께 남쪽의 ‘유다 산지’에 자리 잡은 ‘예루살렘’, ‘베들레헬’, ‘헤브론’ 등의 도시들과 쉘펠라 지역에 위치한 ‘게셀’, ‘벤세메스’, ‘아세가’, ‘벤 구브린’ (마레사), ‘라기스’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세바스티야’나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속해 있어서 성지 순례자들이 이곳의 성지를 방문하는 것은 안전의 문제로 가능하

지 않다. ‘성지 순례의 꽃’으로 불릴 수 있는 예루살렘은 필자가 『목회와 신학』의 별책부록인 『그말씀』 2008년 7월호와 9월호에 나누어 연재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세하게 안내한 바 있고, 지면(紙面) 관계로 여기서는 단지 지나가면서 소개해야 한다.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에게 역사적 중심도시이며, 종말론적으로는 성도들의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윗이 이곳을 여부스 족으로부터 빼앗은 후 예루살렘은 시대를 달리 하며 유다 산악 지역의 중심 도시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으뜸이 되는 도시였다. 지금은 성지 답사 시, 옛 예루살렘 유적이 남아 있는 성지 순례지들은 성전 산 주변, 십자가의 길, 시온 산 지역, 다윗 성 지역 등과 그와 함께 주변의 기드론 골짜기와 감람산 지역을 돌아본다.

해안평야 지대에서 보면 높은 곳에 있지만, 유다 산악 지역에서 보면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



소라에 있는 심손 부자의 무덤

에 한글 개역성경에서 ‘평지’ (신 1:7; 수 9:1, 10:40; 왕상 10:27 등 20 번 나옴)로 번역된 ‘쉐펠라’ 지역은 유다 산악 지역과 접해 있는 동쪽은 해발 400-500m, 그리고 해안평야와 붙어있는 서쪽은 해발 100-200m 높이의 고도를 가지고 있는, 길이 45km, 폭 16km 크기의 지역으로, 블레셋 해안평야와 유다 산지 사이에 위치해 있어 구약시대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다. 유다 산악 지역에서 아얄론, 소렉, 엘라, 구브

린, 라기스 골짜기를 통해 쉘펠라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골짜기는 쉘펠라 지역에 중앙 산악 지역과 연결하는 이동로를 제공하고, 또 산지로부터 흘러 내려온 충적토(沖積土)를 제공하여 쉘펠라에서 경작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 골짜기들 아래 쉘펠라 지역에 여러 도시들이 세워졌다. 예루살렘과 쉘펠라를 연결하는 중요한 이동로인 벤호른 길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기브아와 벤호른을 경유하여 ‘아얄론 골짜기’를 지나 솔로몬이 세

운 병거성이었던 ‘게셀’에 이른다. 골짜기가 깊고 꼬여 있어 유용한 능선길을 제공하지 못한 ‘소렉 골짜기’ 아래에는 ‘벤세메스’(수 15:10 등), ‘소라’(삿 13:2 등), ‘딤나’(수 19:43 등) 등의 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 유다 산지와 쉘펠라를 연결하는 중요한 길은 ‘엘라 골짜기’ 길이었는데, 동서로 연결되는 이 길과 대각선으로 연결되는 ‘대각선로’가 교차되는 곳에 이 지역을 방어하는 요새 역할을 했던 ‘아세가’가 위치해 있다.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뎀 앞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터였다(삼상 17:1-3). 유다 산지와 쉘펠라 지역을 잇는 다른 골짜기인 ‘구브린 골짜기’ 끝자락 ‘평지’에는 유다의 아사 왕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백만과 병거 삼백 대를 이끈 대군(大軍)과 접전하여 물리쳤던 곳인 ‘벨구브린’(마레사)이 있다(대하 14:9-15). 쉘펠라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요새 도시인 ‘라기스’는 ‘라기스 골짜기’를 통해서 남쪽

유다 산지의 주요 도시 헤브론과 연결된다. 라기스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 취한 도시로(수 10:32), 블레셋 평야에서 유다 산지의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 이집트의 텔 엘 아마르나(Tell el Amarna)에서 발견된 서신들 중에 이곳 라기스에서 보낸 서신이 하나 남아 있다. 텔 라기스에 주전 13세기에 무너졌으나 솔로몬 시대에 수축된 성채의 유적이 남아 있다. 라기스에 남아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는 므깃도와 같은 형태의 성문과 성벽, 거대한 저수조 등과 함께, 성문 방에서 발견된 21개의 서신들(Ostraca)이 있다. 유다의 왕 아마샤가 모반한 무리를 피하여 여기로 피신하였으나 피살되었으며(왕하 14:19), 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 앗수르 왕 산헤립이 일시 점령하였으나 조공을 약속받고 이곳에서 물러났다(왕하 18:14-17; 19:8). 그러나 이곳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다시 점령당하였는데(렘 34:7 이하), 성문 방에서 발

견된 한 편지에서 바벨론의 공격과 관련하여 “라기스의 봉화를 보고 있다. 아세가의 것은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지중해 해안 지역과 쉘펠라 지역의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길을 살펴보면, 세 가지 길이 있었다. 북쪽 길은 소렉 골짜기 상의 도시 벤 세메스에서 해안 방향으로 내려가면 담나를 지나 블레셋 평야의 해안 사구에 형성된 도시 ‘아스돗’에 이르게 되며, 중간 길은 엘라 골짜기와 만나는 쉘펠라 상의 도시 아 세기에서 해안 방향으로 내려가면 쉘펠라 상에 있는 블레셋 도시인 가드를 지나 해안사구에 건설된 ‘아스글론’에 이른다. 또 남쪽 길은 라기스 골짜기의 중요 거점 도시인 라기스에서 해안 방향으로 두 길로 나누어지는데, 북쪽 길은 해안평야를 지나 ‘아스글론’에 이르며, 남쪽 길은 해안평야를 지나 ‘가사’에 이른다.

2. 유대광야와 사해 지역

유대광야는 예루살렘 동남쪽 방향으로 유다 산악 지대와 사해 사이에 위치해 있는 남북길이 75km, 동서폭 16-25km 크기의 광야로, 강우(降雨)의 경계를 이루는 ‘분수령길’(water shed ridge road) 동편의,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강우 음달’(rain shadow)의 경사 지대를 말한다. 중앙 산악 지역에 위치한 예루살렘(해발 750m)과 여리고가 있는 사해(-410m) 서북단 사이의 거리는 약 24km인데, 표고차는 약 1,200m에 이르러 가파른 경사길로 연결된다. 사해의 서안(西岸)과 맞닿은 유대광야 끝자락은 가파른 세노마니안(Senomanian) 계의 석회암의 절벽을 이루고 있다. 사해 서안의 주요 성지로는, 북에서 남으로, 여리고, 쿰란, 엔게디, 마사다 등을 들 수 있다.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저지대(해발 -250m)에 위치한 ‘종려나무의 도시’와 비옥한 ‘오아시스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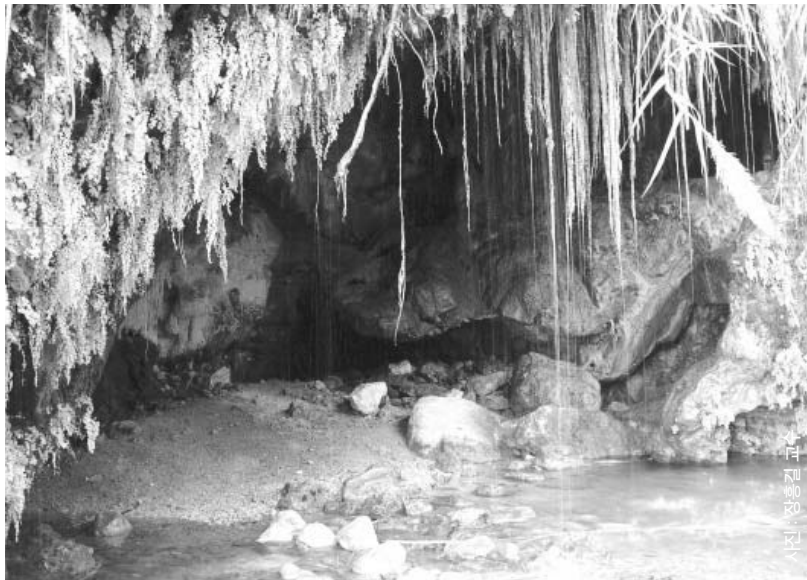
유대광야 끝자락의 여리고 시험산 수도원

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여호수아에 의해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먼저 함락된 도시였다(수 6:21). 이 도시는 알렉산더 이후 주변 지역의 행정 중심 역할을 하였으며, 로마 시대에는 헤롯에 의해 와디 켈트의 초입(初入)에 위치하여 중앙 산악 지대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로 건설되었다. 구약 시대의 여리고에서 2-3km 떨어진 곳에 헤롯이 건설한 신약 시대의 여리고가 있다. 여리

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쿰란은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에세네파 사람들로 구성된 종말론적 공동체의 유적이 발견된 곳으로서, 쿰란 공동체는 주전 2세기부터 이곳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의 권위와 제의를 인정하지 않고 '의의 교사'의 지도 아래 수도원적 집단생활을 하면서 임박한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며 살았던 종말론적 공동체였다. 1947년 쿰란의 11개 동굴에서 에스더서를 제외한

구약 전권(全卷) 사본과 그 주석들, 그리고 이 공동체와 관련된 많은 사본들이 발견됨으로써 중요한 유적지로 부각되었다. 이 공동체는 주후 68년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던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였다. 쿰란 유적지로부터 남쪽으로 30km 지점에 위치한 '엔 게디'는 구약성경에서 '엔 게디 황무지' (삼상 24:1) 또는 '엔 게디 요새' (삼상 23:29)로 언급되었는데, 예루살

렘에서 광야를 통하여 엔 게디에 이르는 길은 '베들레헬', '드고야', '시스고개' (대하 20:16)로 이어지며, 이 길은 다시 '마사다'와 '리산' 반도를 통해 '요단 건너편 땅' (Transjordan)과 연결된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600명의 군대와 함께 엔 게디의 도둑 동굴에 은신하여 생명을 구했는데, 이 동굴은 현재 이스라엘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현장교육 방문지로 활용되기



다윗이 피신한 도둑동굴

도 한다. 엔 게디 샘 위쪽에서 주전 4천 년대의 성소(聖所)가 발견되었으며, 로마 시대의 성터와 목욕탕 시설, 5세기의 고대 유대인 회당 유적 등이 남아 있다. 엔 게디 유적지 근처에는 사해 온천 휴양 시설이 있어 지나가는 성지 순례자들에게 잠시 여독을 풀게 하는 방문지가 되기도 한다. 엔 게디 남쪽 16km, 사해 서쪽 2km 지점에 위치한 ‘마사다’는 사해 남쪽의 나바트인과 사해 동쪽의 리산 반도로 침입하는 모압인에 대해 방어하고 유사시에 피난처로 삼기 위해 하스몬 왕조의 대제사장 요나단 마카비(주전 161-142년) 때 처음으로 구축된 요새이다. 이 요새는 남북 길이 570m, 동서 폭 350m, 높이 445m의 바위산 위에 세워졌는데, 대 해룻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주전 36년부터 30년 동안 이중 성벽, 방어를 탐, 창고, 저수조, 병사, 병기고, 목욕탕, 3층 구조의 궁전을 짓고 이곳을 요새화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요새는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

된 후 유대 열심당이 로마에 대항하여 최후까지 저항한 제1차 유대 전쟁(주후 66-73년)의 막을 내리는 비극적 무대가 되었다. 마사다의 서편으로 난 광야 길을 따라가면 나타나는 ‘텔 아랏’은 초기 청동기 시대의 가나안 도시 아랏의 유적들과 분열 왕국 시대 유대의 왕들에 의해 세워진 요새가 남아 있는데, 특별한 성지순례 시 주변의 광야에 있는 베두인의 천막에서 야영 체험을 할 수 있다. 출애굽 당시 이곳 아랏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나(민 21:1), 결국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되었다(수 12:14). 그 후 모세의 장인인 겐의 후손들이 이곳으로 와서 살았다(삿 1:16). 이집트 룩소의 카르낙 신전에서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 아랏은 주전 925년 이집트 파라오 시삭(Shishak)의 정복도시 목록에 나타난다.

(2) 사해

사해는 그 북단이 예루살렘에서

::성경과 성지



엔게디에서 바라본 사해

동쪽으로 약 35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그 지리적 개요를 살펴보면, 남북길이 80km, 동서폭 17.6km, 수면 -410m, 최대 깊이 390m, 둘레 230km, 넓이 1,020km² 정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호수이다. 수십 년 전과 비교해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남쪽 아래 지역은 물이 드러나 사해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 현재는 남쪽 사해에 물이 말라 북쪽의 물을 끌어대고 있다. 사해는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암 하멜라흐', 곧 '염해(鹽海)로 불리는데, 이는 염

도가 보통 바다(3.5-5%)의 8-9배에 달하는 26.3-33%에 이르기 때문이다. 강한 염도로 인하여 사람이 들어가도 가라앉지 않고 뜨게 된다. 요단강과 사해 주변의 와디에서 매일 평균 500만 톤의 물이 유입이 되지만, 연중 계속되는 30°C 안팎의 기온으로 증발이 심하여, 최근에는 해마다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해 물은 칼슘, 비누와 비료의 원료가 되는 포타시움, 마그네슘, 유황, 브로마인 등 여러 가지 광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사해 근처에 이를 채취하는

화학 공장들이 많이 있다. 특히 플라스틱, 농약, 페인트 등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브로마인의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4분의 1 정도에 이른다. 사해 주변에는 온천이 많으며, 사해 물은 각종 피부병 치료에 효험이 있고, 주변의 진흙은 미용 효과가 좋을 뿐 아니라, 이 지역의 대기 산소가 다른 곳보다 10% 가량 많아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성서 시대에는 ‘혀’ 모양처럼 생긴 이곳의 리산 반도를 통해 요단 동편의 모압, 암몬 땅으로 왕래하였다. 사해 북단에서 북서쪽으로 11.2km 지점에 중앙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여리고가 있다.

3. 네게브 지역

네게브는 서쪽의 ‘가사’ (해발 10-100m), 중앙의 ‘브엘세바’ (해발 250m), 동쪽의 ‘아랏’ (해발 550m)을 밀변으로 하고 아카바 만을 꼭지점으로 하는 역삼각형의 남

쪽 사막 지대로, 히브리어로는 ‘남방’ (창 12:9; 13:1; 민 21:1; 13:22)을 의미한다. 유다 산지(헤브론 950m)가 브엘세바 근방에서 갑자기 끊기고 낮은 분지를 형성하다가 다시 남쪽으로 가면서 급격하게 고도가 높아진다. 성서시대 네게브인 가사, 브엘세바, 아랏은 연 강우량 200mm로 경작이 가능하였으며, 그 남쪽 네게브 지역은 연 강우량 100mm 이하로 남쪽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아카바 만의 에일랏은 연 평균 강우량이 20-50mm에 불과하다. 성서시대 네게브는 오래 전에 바닷물이 들어와 형성된 해양 침전물과 세노니안 계의 석회암층과, 그 위에 바람에 날려 온 황토(Roess, 12m)가 쌓여 있는 지역이다. 이런 지질학적 특성으로 비가 오면 빗물이 잘 스며들지 못하여 갑자기 쓸려내려가면서 예기치 않은 홍수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시편 저자는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 같이 돌리소서”(시 126:4)라고 간구하는 노래를 읊조리기도 하였다.

그 밖의 대부분의 네게브 지역은 고도가 다시 500-1000m로 높아지는 신(Tsin) 광야와 바란 광야 지대이다. 구약시대에는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었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는 에돔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이곳에 이두매(Idumea) 왕국을 이루었고, 신약시대 이후로는 버려진 황무지로 방치되다가, 현대 이스라엘로 들어서서는 초대 수상 벤구리온에 의해 네게브 광야 개발이 시작되었다.

네게브는 유다 산지를 보호하는 완충지 역할을 하였으며, 아라비아 대상(隊商)들이 에돔을 경유하여 이집트, 다메섹, 가사(헬라 세계)로 향료를 나르는 무역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집트 신(新)왕국 제 19-20왕조 때에는 '팀나'에 많은 구리 광산이 있었으며, 하솔을 경배하는 신전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물이나 기후 등의 거주 조건에 열악하였으나 군사적·상업적 중요성 때문에 유다는 이를 장악하려 하였다. 다윗은 아말렉, 에돔 등을

정복하여 이 지역의 무역통상로를 확보하였으며, 솔로몬의 사후 애굽의 시삭이 네게브를 침입하여 거주지를 파괴하기도 하였다. 주전 9-8세기에 유다와 에돔 사이에서 이 지역의 장악권 쟁탈전이 일어났으며, 주전 7-6세기에 유대인의 네게브 거주는 앗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저지되기도 하였다. 바벨론은 쉘펠라 지역 사람들을 이곳으로 유배시켰다. 그 후 에돔이 이 지역을 확보하였고, 주전 3세기경에는 나바트인들이 이곳으로 들어와 살았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네게브 통상로를 장악하였는데, 이때 나바트인들이 농장을 운영하였고, 대상들에게 물과 음식을 공급하였으며, 관개 시설을 만들고 와디에 댐을 건축하는 일 등으로 로마의 수발을 들었다.

성경에 언급된 네게브(남방)의 주요 도시로는 '그랄', '브엘세바', '아랏'을 들 수 있다. 먼저, '그랄'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인 사라와 리브가

를 누이로 속여 보호를 받았던 곳이며(창 20:1-2; 26:6-11),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 목자들 사이에 우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났던 곳이다(창 26:17-22). 족장시대 이후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여 이곳에 거주하였으나, 왕국시대 초기에 유다의 땅이 되었다가, 그 후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맹세의 우물’(창 21:22-32) 또는 ‘일곱 우물’(창 26:26-33)이라는 뜻을 가진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거주지였으며(창 21:33), 엘리야의 피신지였고(왕상 19:3), 포로기 후 유대인의 영역이었다(느 11:27, 30). 이곳에 주전 3600년경부터 거주하던 정착지로 주전 10-7세기 유적이 많이 발굴된 텔 브엘세바가 있다. 텔 브엘세바 외에도 나바트인과 기독교인의 도시 ‘맘솿’과 ‘쉬브타’, 두 개의 샘이 있는 신(Tzin) 광야의 ‘엔 아브닷’, 나바트-로마-비잔틴 도시 ‘아브닷’, 라몬 분지(마크 테쉬 라몬)에 이스라엘 국립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4. 에일랏과 아라바 계곡 지역

사해 남쪽에서 아카바 만의 에일랏에 이르는 요르단 계곡을 ‘아라바’라고 부르는데 그 길이는 184km에 이르며, 계곡의 양쪽 기슭은 바다에서 해발 217m까지 솟아오른다. 사막이지만 매장되어 있는 구리 때문에 가치가 있었는데, 특히 구리 광산이 있는 ‘탐나’ 공원은 이스라엘 내 이집트의 유적이 남아 있는 몇 곳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은 자연보호가 잘 되어 있는데, 요세푸스의 전투로 유명한 ‘욫바다’에는 사막의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국립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에일랏’에는 산호초가 잘 보존되어 있는 홍해의 아름다운 산호초 해안 국립공원이 있다. 이 두 곳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이 신 광야의 가데스에 머물기 전에 진을 쳤던 출애굽의 경유지이며(민 33:33-35), 그 중 에일랏은 고대에는 솔로몬이 아라바 남단에 건설한 항구도시 ‘에시온 게벨’이었다.

III. 나가는 말

필자는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의 성지를 ‘골란 고원과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 ‘하부 갈릴리 지역’, ‘지중해 해안과 중앙 이스라엘 지역’, ‘유대평야와 사해 지역’, ‘네게브 지역’, ‘에일랏과 아라바 계곡 지역’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성지와 성경의 관련의미를 간략하게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한된

지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성지를 상세하게 안내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에 성지를 한 번에 이해하는 개략적인 안내는 된 듯하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필자가 집필하여 출판하려 하는 이스라엘 성지 안내서, 『국립공원을 보면 이스라엘 성지가 보인다』(가칭)에 자세하게 안내하려 한다. 다음 호에서는 이집트의 성지를 소개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Aharoni, Yohanan. *The Land of the Bible*.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 Brisco, V. Thomas. *Holman Bible Atlas*. 강사문 외 7인 공역. 『두란노 성서지도』. 서울: 두란노서원, 2008.
- Hoerth, Alfred J. *Archaeology &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1998.
- The Holy Land Satellite Atlas I*. Nicosia: Røhr Production, 1999.
- McRay, John. *Archaeology &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1991.
- Vos, Howard F. *An Introduction to Bible Geography*. 한정건 · 신득일 공역. 『성경 지리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이스라엘 자연과 국립공원 보호청(Israel Nature & National Parks Protection Authority)이 발행한 안내 소책자.

● **장흥길** 성균관대학교(B.C.)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를 나와 독일 에어랑겐대학교(Dr.theol.)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이며 본 연구소 소장으로 있다.